



이달의 優秀發明

■發明振興部 任謹淳 記

개피떡 製造機

實用新案 第38606號로 登錄

第677回 이週의 優秀發明은 朴斗燁씨(부산 동래구 사직동 22-7)에 의해 開發된 개피떡 자동 제조기가 選定됐다.

實用新案 第38606號로 登錄(10.25)된 이 考案은 高물(팔·콩·참깨) 및 떡을 기계에 넣으면 반달모양의 개피떡으로 일정하게 자동배출되게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피떡을 만들려면 쌀가루를 익혀서 흰떡가래와 같이 떡기계에서 빼낸 다음 이것을 넓은판에 얇게 늘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였으며 단시간에 대량의 개피떡을 제조할 수 없는 결함이 있었고 비위생적이었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이 개피떡 자동제조기는 압송스크류에 익힌떡을 넣으면 압송스크류에 의하여 강제로 壓送되면서 밴드형 떡이 성형되고, 또 이떡은 떡성형기위에 실려서 고물 배출구에 도달하게 되면 고물성형기는 고물을 일정량 절단하여 떡성형기위에 떨어트리면서 개피떡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기계에 의하여 제조되므로 위생적이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第677回 이週의 優秀發明>

주방오물 自動處理機

實用新案 第38655號로 登錄

第678回 이週의 優秀發明은 寶興産業(株)(代表理事 安錫淳,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504-1)에 의해 開發된 주방오물 自動處理機가 선정했다.

實用新案 第38655號로 登錄(10.31)된 이 考案은 주방에서 발생하는 오물을 신속하게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고, 특히 오물自動處理機 작동시에 모터로부터의 방출열을 냉각시킬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오물自動處理機를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국내에도 소개된바 있으나 오물이 많을 경우 모터로부터 발생하는 고온의 열로 인하여 모터의 손상우려와 더운 음식물을 조리하는 주방이 후덥지근 하여서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오물自動處理機는 모터로 회전되는 분쇄판과 분쇄링으로 구성된 것의 몸체 內·外部 사이에 냉각관을 설치하여 오물의 용량과 관계없이 일정시간동안 오물처리를 자동하더라도 기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오물을 잘게 부수어 하수도로 보낼 수 있다.

<第678回 이週의 優秀發明>

보리새우의 高密度 養殖裝置

特許 第26548號로 登錄

第679回 이週의 優秀發明은 林性基씨(서울시 강남구 잠원동 130-17)에 의해 開發된 보리새우의 고밀도 양식장치가 선정됐다.

特許 第26548號로 登錄(11.14)된 이 發明은 보리새우의 인공양식을 가능케 한 것이다.

보리새우는 우리나라의 남·서해안에서 6~11월경 잡어류와 함께 잡히는 갑각류의 고급식품에 속하는 어종으로서 그 특성인 연약한 체질과 난폭한 성격, 수온이 15°C 이하일 때에는 동사 등으로 인하여 양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리새우의 특성을 관찰 하므로써 보리새우 양식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그 구성으로는 원형으로된 양식조 중심부에 배수관을 설치하고 양식조 내측에 45° 경사진 망판과 그 위에 모래바닥을 설치하며 양식조 바닥에 설치된 2차 배수관으로 배수된 물이 순환여과기와 가열장치를 통해 순환유입관으로 순환될 수 있게 한 것이다.

〈第679回 이週의 優秀發明〉

손가락 길이를 利用한 開閉裝置

實用新案 第38792號로 登錄

第680回 이週의 優秀發明은 李光實씨(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94-166)에 의해 開發된 손가락 길이를 이용한 개폐장치가 선정됐다.

實用新案 第38792號로 登錄(11.15)된 이 考案은 손가락의 5개 끝점과 손가락 사이의 골을 이루는 4개의 점으로 이루어지는 9개의 점이 사람마다 각기 그 위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데에 착안하여 이 9개의 점을 이용하여 폐정장치를 개폐 작동되도록 한 것이다.

종래의 모든 개폐장치는 열쇠나 버튼, 다이알 등을 이용하여 열도록 되어 있는바, 이들 개폐장치는 열쇠를 분실하거나 버튼넘버, 다이알넘버를 노출시켰을 때는 아무나 열수 있도록 되어 있어 완벽한 보원이 불가능 하였다.

그러나 새로 開發된 이 考案은 폐정장치를 센서가 작동되도록 하고 受光部와 投光部 사이에 미세구멍이 뚫린 遮光板을 설치하며 작동간을 손가락 끝과 손가락 사이에 승강시켜 遮光板의 미세구멍이 일직선상에 놓여지면 投光部の 광선이 미세구멍을 통과하여 受光部를 작동시키고 受光部는 센서를 통해 폐정장치를 작동시켜 開閉할 수 있는 發明品이다.

〈第680回 이週의 優秀發明〉

清 掃 機 器

實用新案 第38852號로 登錄

第681回 이週의 優秀發明은 諸葛東晁(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90-44)에 의해 考案된 청소기가 선정됐다.

實用新案 第38852號로 登錄(11.22)된 이 考案은 고층건물의 바깥쪽 유리면이나 벽면을 실내에서 안전하고 쉽게 빨리 닦아내기 위하여 청소기를 사람의 팔모양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종래에는 고층건물의 바깥유리면이나 벽면을 닦기위해 창밖으로 나가서 긴막대에 청소 도구를 착설하여 작업을 하던가 옥상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긴 밧줄을 내려 그 밧줄에 사람이 의지하여 청소해야 하므로 작업능률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을 감수하고 작업을 하였었다.

그러나 이 고안은 실내에서도 청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청소기의 손잡이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음 숫사관장치와 팔굽모양의 굽은대가 장치되고 또한 굽은대 선단에 설치된 좌·우 회전장치 및 상·하 회전장치에 의하여 요망하는 일정각도로 좌·우 회전시킬 수 있게 했다.

〈第681回 이週의 優秀發明〉